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kicce.re.kr	보 도 자 료		
	작 성	담당부서	육아지원정책연구팀(☎ 02-398-7788)
		담당자	박은정 육아지원정책연구팀장 (☎ 02-398-7788)
	배 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 02-398-7740)
		일 시	2026년 9월 14일(월)
보 도 일 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제56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성료

- 출산을 반등, 맞춤 육아지원을 요구하다!

< 주 요 내 용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2026년 9월 10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명동포스트타워 21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산을 반등, 맞춤 육아지원을 요구하다!」를 주제로 제56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이날 심포지엄에는 다양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출산율 반등의 의미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지역 및 노동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육아지원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 특히 심포지엄이 개최된 9월 10일은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되는 날로, 저출생 대응을 넘어 지역 간 인구 불균형, 가족·가구 형태의 다양화, 노동시장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출산율 반등을 지속가능한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가족과 노동시장,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육아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모든 부모가 거주 지역이나 고용형태 등 서로 다른 조건에서도 동등한 양육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지역별 인구구조와 수요에 맞게 돌봄 공급과 서비스 전달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한편, 고용형태와 소득 발생 방식이 다양해지는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일하는 모든 부모가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을 반등 현황과 맞춤형 육아지원: 농어촌 영유아 가구 지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최근 출산을 변화와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양육환경을 살펴보았다. 농어촌 지역의 육아환경을 단순히 보육시설 부족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보육·교육뿐 아니라 의료, 놀이·문화, 이동 여건, 정보 접근성 등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생활환경 전반의 격차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또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교육과 보건·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내 기존 기관과 지자체, 중앙정부 간 역할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인구밀도와 생활권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마련을 강조하였다.
-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출산 세대의 고용구조 변화와 육아지원의 재설계」에서 출산 중심 세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기존 육아지원체계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고용형태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심의 제도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부모의 돌봄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 육아지원의 대상을 출산·육아기의 모든 일하는 부모로 확대하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등한 돌봄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지원방식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노동 형태가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고용형태에 기반한 지원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실제 돌봄 필요를 지원하는 야간·휴일·긴급 돌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영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혜원 서경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 최영 교수는 최근 출산율 반등을 특정 정책의 효과로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 출산 세대의 규모와 경제·사회적 조건, 지역별 차이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역소멸과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지원뿐 아니라 돌봄·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와 정주여건을 확충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휴가·근로시간·돌봄서비스를 유연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신혜원 교수는 육아를 ‘가치 있고 즐거운 삶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양육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심 셰어런팅(sharenting)’ 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양육정보 제공, 전문성 있는 돌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육아지원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강민정 연구위원은 비정형 노동의 증가 양상을 성별로 세분화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의 유연한 고용형태 선택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응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야간·휴일·긴급돌봄 확대와 함께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유해미 선임연구위원은 취약시간대와 긴급돌봄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형·방문형 돌봄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다만 대체돌봄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과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구조도 함께 변화해야 하며, 결국 육아지원은 부모의 노동권·부모권과 아동의 기본권 및 행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제56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자료집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자료집 내려받기: <https://m.site.naver.com/2f8Wf>

붙임 제56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사진 5매. 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상세문의]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

(육아지원정책연구팀)

[배포부서] 기획조정본부 출판홍보팀

박은정 팀장

김혜진 팀장

주송희 책임행정원

02-398-7788

02-398-7729

02-398-7740